

사람도, 자연도
더 많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Fertilizer & Global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조경수

2023.04+05+06 Vol.179

ISSN 1225-4169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2023.04+05+06 Vol.179



ALL IN ONE
코코피트+질석+규조토



프리미엄
1등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용 토양개량제



- 생생토 골드 20kg
- 토양개량효과 증진
 - 천연부엽토(강원 홍천) 30% 함유로 가스피해 없는 안전한 유기물과 영양성분 공급
 - 유용 토양 미생물로 병해예방
 - 보습제함유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장해예방
 - 뿌리활착과 원기회복으로 수목 고사율 감소



- 조경용 고품비료 20kg
- 비료효과 기간이 일반 복합비료의 3~4배
 - 3년이상 "성목 관리용 비료"
 - 조개탄 모양으로 시비가 편리
 - 수목의 푸름, 꽃빛깔을 신선하게 유지
 - 황산칼리 함유로 하고현상 및 염도피해 방지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조경수협회 쇼핑몰** 에서 가능합니다.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중기업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룡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동화기업 · 한솔홈데코 협력업체

대 우 임 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대표 구본찬 전무 구본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소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 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 4구(분리형) (4.5ℓ, 6.4ℓ)

. 크기 : ϕ 200 x H200 / ϕ 246 x H210
. 용도 : 대형묘목/소형 조경수 생산용



◆ 시설양묘용기- 6구

. 크기 : 1,350ml (ϕ 120* ϕ 80)
/ 420 x 280 x H 170
. 용도 : 소나무, 편백 2년생 등



◆ 화분140(블루베리재배용기)

. 크기 : 1400ml (ϕ 830 x H450)
. 용도 : 블루베리 재배전용용기



◆ 화분받침대(6구,9구,20구)

. 크기 : 6구-450 x 300 x 80
9구-382 x 382 x 79
20구-470 x 377 x 80



◆ 삽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 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삽목 생산용



◆ 화분 4.5,7,12,19,25

. 크기 : 4.5 ℓ, 7.0 ℓ, 12.0 ℓ 25.0 ℓ
. 용도 : 소,중형 조경수 생산용



◆ 조경포트 20형/35형/45형/65형/95형

. 크기 : ϕ 335xH305 / ϕ 430xH350
ϕ 470xH345 / ϕ 520xH375 / ϕ 583xH420
. 용도 : 중,대형 조경수 생산용

■ 산림용 자재 품목 및 규격 (규격에 없는 제품도 생산, 판매중)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 ℓ)	품 목	크 기 (가로x내경x높이)	용적 (ℓ)	비 고
4구(분리형)	400x400x80	ϕ200/4.580	화분4.5	ϕ211xϕ200xH200	4.5 ℓ	색상5종
6구	420x280x170	ϕ120/1.350	화분6.4	ϕ246xϕ230xH200	6.4 ℓ	색상5종
특 6 구	510x340x160	ϕ109/0.863	화분7	ϕ257xϕ200xH200	7.0 ℓ	색상5종
12구	450x340x170	ϕ102/1.050	화분12	ϕ300xϕ270xH250	12.0 ℓ	검정색
15구(일체형)	425x255x162	ϕ75/0.510	화분25	ϕ385xϕ358xH300	25.0 ℓ	검정색
24구(일체형)	420x280x140	ϕ64/0.310	화분140	ϕ830xϕ750xH450	140.0 ℓ	
40구(160)	450*280*115	50*50/0.160	조경포트 20형	ϕ335xϕ250xH300	19.0 ℓ	
40구(270)	443x280x140	50*50/0.270	조경포트 35형	ϕ427xϕ335xH350	35.0 ℓ	
88구	440x320x65	ϕ36/0.043	조경포트 45형	ϕ470xϕ400xH345	46.0 ℓ	
삽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조경포트 65형	ϕ520xϕ450xH375	65.0 ℓ	
삽목상자160	520x370x160	삽목상자	조경포트 95형	ϕ589xϕ507xH427	95.0 ℓ	
삽목포트176	535x370x60	30*30/0.036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 다양한 시설양묘용기, 조경수용기, 화분 등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국일화학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볼보 소형 전기 굴착기

ECR25
ELECTRIC

www.volvoce.co.kr



•운전중량: 2,660kg •버킷용량(표준): 0.11m³

※본 사진의 옵션사양은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기 가스는 없애고, 연료비 걱정은 줄이고, 구입 부담은 내렸습니다.



농축산, 조경, 화훼 현장



일반 토목 현장



지하 밀폐 현장



철거 현장

볼보 일렉트릭 전기소형굴착기 론칭 기념 고객 사전 상담 이벤트

“지금 바로, 부담없이 제품도 확인하시고
푸짐한 기념선물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볼보의 전기 굴착기 전문 상담사와 직접 제품 정보도 확인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증정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볼보 콜센터 1644-1172 로 제품 상담 신청 또는
www.volvoce.co.kr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직접 참여 가능

상담이벤트 참여시 혜택

1. 볼보 전문 카운셀러 상담 연결
2. 제품 정보 및 고객 현장 컨설팅 지원
3. 가격 및 보조금 지원 안내

고객 방문 시승 지원 (제품 상담시 신청 가능)

볼보 ECR25 행사장 방문 시,
직접 시승 작업 체험 지원 (볼보경기센터 행사장 / 경기도 화성시)

이벤트 기념품

1. 사전 상담 고객: 볼보 쿨토시 증정
2. 시승 방문 고객: 볼보 쿨토시 + 볼보 휴대용 미니 백팩 + 운전실 햇빛 가리개 증정
3. 제품 구매 고객: 볼보 ECR25 오리지널 모형(1:32) + 볼보 고급 딜리버리 키트(3종) 제공

이벤트 참여고객 증정품



볼보 쿨토시



볼보 미니 백팩



운전실 햇빛 가리개

제품 구매 고객 증정품



볼보 캐리어 백



Volvo Chronograph Solar Watch
볼보 오리지널 트윈 와치



볼보 고급 선글라스



Volvo ECR25 오리지널 모형 1:32

※본 증정품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3. 04+05+06 Vol.179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조경수



성우조경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231-7(제1농장)

발행인 겸 편집인 유수근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 1월 21일

발행일 2023년 6월 20일
(통권 제179호 04+05+06호)

발행 및 편집주간 류주열

제작실무 박소현, 최영두,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04 협회소식

17 지회소식

28 회원사탐방

38 조경수 특집

48 조경수 유물관리

56 새로운 조경수

68 조경수 기고

72 역사 속 나무 이야기

76 노거수 산책

82 회원사 동정

84 회비납부 안내

85 알림

경기지회 「성우조경」

이팝나무

수목진단 장비와 실제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4편

금성대군과 압각수

남궁역의 무궁화 사랑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

• 박정기

• 이노혁

• 정규중

• 김종근

• 이용직

• 신현배

• 박정기

개정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개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한국조경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자미Ⅲ)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전국 영업망
서울지사 02-2678-5465 | 경기센터지사 031-294-8111 | 강원지사 033-762-7491 | 충청센터지사 041-556-9012 | 중부센터지사 042-932-7113 | 전남센터지사 062-945-4441~3,5
대구경북센터지사 053-741-2700 | 부산경남센터지사 055-256-4100 | 춘천지점 010-6305-1223 | 울산지점 052-710-4989 | 제주지점 064-712-2488

KakaoTalk 채널
http://pf.kakao.com/_xhQaGC
V-TV 채널
YouTube 채널 볼보 V-TV
볼보건설기계 고객지원센터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앱 설치 후, 이용가능

VOLVO

본지에 게재된 내용과 사진은 발행자인 (사)한국조경수협회의 동의 없이는 복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NEWS

한국임업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

- 01. 일 시 2023년 3월 29일 (수)
- 02. 장 소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
- 03. 내 용 - 부회장 선출 : 윤수근 (사)한국조경수협회장 외 6명
-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과 사업계획 의결
-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간 중(10월 5일~6일)
산림심포지엄 및 선진지 견학 추진



NEWS

[국토녹화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
국무총리상 수상

- 01. 일 시 2023년 4월 5일 (수)
- 02. 장 소 광릉 국립수목원
- 03. 내 용 산림사업유공자로 김규열 명예회장님 국무총리상 수상



NEWS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기총회

- 01. 일 시 2023년 4월 11일 (화)
- 02. 장 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3층 사무실
- 03. 내 용 산림사업 규제 개혁 관련



NEWS

2023년 조경수 재배기술교육 및
조경수조성관리사 보수교육

- 01. 일 시 2023년 5월 3일, 5월 10일~11일, 5월 17일~18일
- 02. 장 소 - KT대전인재개발원
- 천리포수목원
- 가사농원 농장
- 흥산조경(엄마의 정원)
- 만년교정원
- 예원조경 농장
- 03. 참석자 조경수재배교육 신청자



천리포 수목원

NEWS

2023년 조경수 재배기술교육 및
조경수조성관리사 보수교육



가사농원 소나무(반송) 옮겨심기 실습광경



가사농원 소나무(반송) 굴취·운반 실습광경



흥산조경 (엄마의 정원)



만년교정원

NEWS

2023년 조경수 재배기술교육 및 조경수조성관리사 보수교육



삼목실습



예원조경 농장

NEWS

2023년 조경수재배기술교육 설문조사 결과

우리협회는 2020년도부터 매년 국비지원 조경수 재배자과정 교육생을 모집하여 회원사 농장을 실습 및 현장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도에는 2023년 05월 03일 ~ 05월 18일까지 총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24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생 소감을 싣는다.(편집자)

■ 만족도 평가 (만족도 총점 : 4.4 / 5점)

항목	만족도 총점	교육 만족도	학습환경 만족도	소득향상 만족도	강사 만족도
점수	4.4(89점)	4.5(90점)	4.4(89점)	4.2(84점)	4.6(92점)

◎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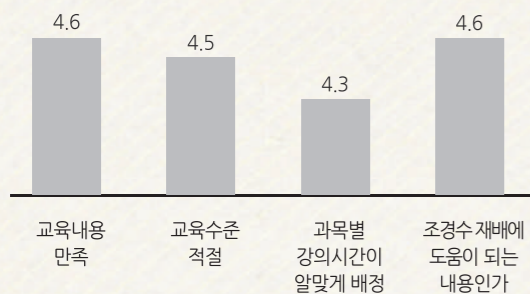
- 교육만족도는 5점만점 평점 4.5(90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 내용에 만족하고, 조경수 재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두 항목이 평점 4.6(92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수준 적절성은 4.5점으로 높았으나 과목별 강사 시간 적정안배가 평점 4.3(86점)으로 평가됨.
- 학습환경 만족도는 평점 4.4(89점)으로 교육장 기자재 만족도 및 교육담당자 교육 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항목이 평점 4.5(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식사 및 숙소 만족도 4.3(86점)으로 평가됨.
- 소득향상 분야 만족도는 평점 4.2(84점)으로 교육 후 협회원 가입의사 및 예산절감 방법 획득 항목이 4.3(86점)으로 높았고, 사업적용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한다는 항목은 4.2(84점), 교육 후 농.산촌업에 정착할 계획이 평점 4.1(82점)으로 평가됨.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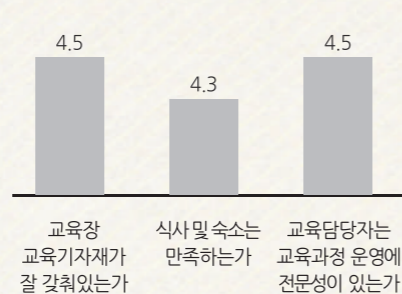
2023년 조경수재배기술교육 설문조사 결과

- 강사만족도는 최고 4.75점, 최저 4.36점, 평균 4.6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일정에 대해서는 금번 교육 일정인 2박, 5일차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타 의견으로 대전 지역 등 접근성 고려한 실습장소 선정, 하우스, 관정 시설, 특수목 재배, 수목생리 등에 관한 교육실시 및 실습 확대 요청 등이 있었음.
- 위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교육시 반영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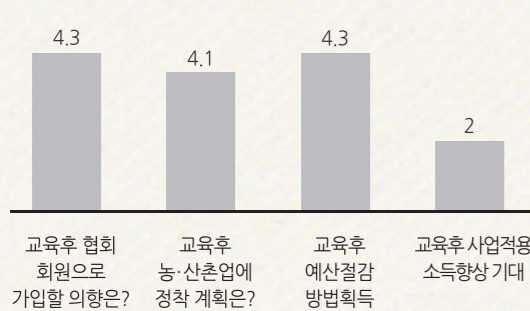
교육만족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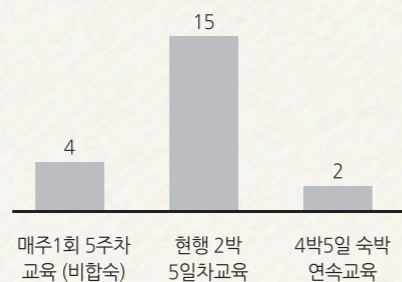
학습환경 만족도 (5점 만점)



소득향상 분야 (5점 만점)



교육일정



NEWS

2023년 조경수재배기술교육 소감문

교육생 : ㄱ**

2023년 조경수 재배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에서 진행해서 그런지 현장 실무 위주의 알찬교육이었습니다. 일련의 산림 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과 견학위주의 현장탐방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조경수협회에서 진행된 조경수 재배 교육은 현장 실무 위주의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생생한 교육이라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회장님 이하 진행담당자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교육지원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교육이었고 앞으로 (사)한국조경수협회 교육은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동기 여러분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현장에서 뵈 뵈 밝게 인사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생 : ㄱ**

본인은 현재 임업 후계자로서 조경수 재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이번 조경수 재배 관리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 과정 중 많은 신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경수 재배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신 류주열 부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생 : ㄴ**


매우 만족하고 교육에 참여한 것에 보람 있고, 뜻있는 5일에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조경수 나무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진로를 바꿀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교육생 : ㄷ**


협회 회원사 농장을 견학 체험하며 조경수 재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고 조경수에 더 빠져들 기회가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NEWS


2023년 조경수재배기술교육 소감문

 교육생 : ○**


평소 조경수 재배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으나 나무 관련 지식이 전무하였던 본인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워하였던바, 금번 조경수 재배 교육을 통하여 교육 내용을 비록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본인의 사전 지식이 전무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사님들의 열의와 적절한 실습 및 견학 활동을 통하여 조경수 재배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회와 강사님들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생 : ○**


재배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양한 농원을 관찰하며 본 수종들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추후 재배업을 꿈꾸는 이가 있다면 추천해주고 싶다.

 교육생 : ○**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고민과 시도로 새로운 방식의 조경수 생산과 농장을 꾸려가시는 생산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조경수협회 실무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생 : ○**


이번 교육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조경수 재배와 함께 뜻깊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강사님들과 수목원 사장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아울러 한국조경수협회 류주열 부회장님과 직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육생 : ○**


우리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업 후계자, 독립가로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 조경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귀 한국조경수협회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부회장님 이하 학습, 강의 진행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 : ○**


이론과 실습을 적절하게 안내한 교육 과정이 유사 타 기관보다 알차게 짜여져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추가하여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매년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 ○**

전문적인 지식 없이 나무를 기르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현지에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함.

 교육생 : ○**

막연한 생각으로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에 참석하였다. 3~4년 전부터 임업에 관한 관심을 두고 아는 친구에게 부탁하니 조경수재배 교육을 소개해주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이야기여서 어리둥절하였다. 교육이 계속되면서 나무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재배기술을 알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올 초부터 무작정 삼목을 하면서 왜 이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점이 해소되면서 참으로 기뻐다. 교육에 임하시는 강사 한분 한분 전문성과 열정 자신의 경험을 소개받으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함께한 동료 참가자분들과 교류하면서 임업 산업에 함께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교육생 : ○**

처음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자격증 보수교육으로 끝낼 게 아니고 전체 교육을 다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 전문성 있는 강사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짧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 일정에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은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NEWS

2023년 조경수재배기술교육 소감문

교육생 : ○**

첫 주 이론 시간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수업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만족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자로 보는 것보다 직접 걸으며 그 땅을 일궈낸 분들의 가슴 벅찬 감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대부분 그 나무와 땅을 일궈낸 분들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경의를 표하며 단지 숙박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교육생 : ㄱ**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경수의 웅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키울 때는 분재형태의 특수목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좋은 목대에 좋은 품종을 접목하여 품종을 개량하여야 하며 소재를 기를 때는 컨테이너 재배로 화분에 담아서 나무를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남들이 키우지 않는 좋은 품종, 꽃피고 열매 맺고 향기 좋은 수종들을 골라서 이쁜 미니정원수 형태로 길러 나가야 할 것이며, 그 나무들이 제값을 받고 팔려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생 : ㄴ**

① 산림시책소개 ② 천리포수목원의 60년 ③ 삼목·접목 ④ 소나무, 반송 전정 및 병충해 이식 ⑤ 조경수 재배기술, 탄소 중립 녹지환경조성 등이 특히 도움이 되고 향수 조경사업 활용에 유효하리라 생각됨. 다만 일부 강사의 자기소개 부족(예, 연락처 경력 등) 시간 부족의 이유로 미전달됨이 아쉽기에 운영관리 도움을 기대함. 그동안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한 운영진의 세심한 노력에 평가의 미를 두고자 함.

NEWS

광주·전남서부지회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01. 일 시 2023년 3월 28일

02. 장 소 시청 야외음악당

03. 참석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시청 관계자, 광주·전남서부지회 회원, 시민 등

04. 내 용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산수국, 홍가시나무, 삼색조팝나무, 샤인머스켓 등 각 2,000주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중앙 강기정 시장, 우측 이병관 지회장



NEWS

경기지회 제78회 식목일기념 나무심기행사

- 01. 일 시 2023년 3월 29일
- 02. 장 소 수원특례시 서호잔디광장 (농업역사문화공원)
- 03. 참석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및 시청관계자, 경기지회 회원, 시민 등
- 04. 내 용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 행사



중앙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우측 2번째 송병수 지회장

NEWS

경남중부지회 엄마의 정원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재학생 50명 견학

- 01. 일 시 2023년 5월 12일
- 02. 장 소 경남 민간정원 14호 '엄마의 정원'
- 03. 참석자 윤수근 회장, 노종식 감사(엄마의 정원 원장),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재학생 50명 등
- 04. 내 용 미래 유망산업의 비전 전수



NEWS

광주·전남서부지회 국내선진지견학

- 01. 일 시 2023년 5월 26일
- 02. 장 소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곡성장미축제, 회원 농장 방문((주)옥담 이근형)
- 03. 참석자 회원 50여명 등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회원 농장 (주)옥담 이근형

NEWS

부산지회 창립20주년기념 해외 연수기

한국조경수협회 부산지회
지회장 박미애 ((주)우림조경개발 대표)



대만여행을 다녀와서

2019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로 인해 부산지회 회원 가족들과 함께 해외견학이 제한되어 비대면 회의로 진행해 왔으나 다행스럽게도 2023년 상반기에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의무 착용이었던 마스크도 벗어던지고 오랜만에 해외선견지견학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선견지 견학 부산지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선견지 견학이었기 때문에 부산지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펍이나 행복한 해외 선견지 견학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견학은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으로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간 절약 위해 김해 출발의 항공노선을 이용하였다. 물론 해외 선견지 견학 내용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 출발 항공편도 이른 항공편(08시 30분 출발)을 이용하여 오후부터 현지 여행

이 시작될 수 있었다. 대만 견학에 참가하는 회원들은 밤잠을 설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김해 공항에 06시 30분에 만나 단체로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회원들이 함께 선견지 견학을 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저마다 엔돌핀이 생성되는 듯 참가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다.

개인적으로 대만 여행은 세 번째지만 회원들과 함께 견학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이 더없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번 대만 선견지 견학을 진행하면서 회원들 상호간의 소통은 그야말로 부산지회의 단합과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날은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출국 절차를 마치고 대만을 향해 출발하여 오전에 타이베이에 도착하여 일정대로 선견지 견학이 시작되었다.

1일차 (4월 24일)

- 서정문 거리 방문

서정문거리는 대만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거리이다. 서정문거리는 십자가 모습으로 네 개의 도로로 이어졌고 한눈에 봐도 대만의 삶을 엿 볼 수 있는 듯 화려하고 세련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거리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거리의 상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먹거리를 찾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을 연상시키기도 하였다.



- 화산1914 방문

화산1914문화창의산업원구(華山1914文化創意產業園區)는 원래 1916년 유명한 과일주 공장이었으나 공장 문을 닫게 되어 방치되어 된 곳을 2007년 전시공연장소로 개조하여 대형 전람회, 장식, 희극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타이베이시의 중요한 문화공연 장소로 재탄생 되었다고 한다. 건물들은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복고풍'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을 실사화한 장소로써 레토르(Retro)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화산 1914에는 음식점, 카페, 디자인용품, 음악 공연공간, 서점 등이 입점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공간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연인들이 거리의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어울릴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 101타워 전망대 조망

2004년도에 완공된 타이베이금융센터(101 타워)는 101층으로 2010년 아랍에미리트(Arab Emirates)의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6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되었다. 대만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잦은 지진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숨어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바로 88층에 자리잡고 있는 직경 5.5m, 660



톤 무게의 황금색의 윈드 댐퍼(Wind Damper)로 천장에 매달려 건물이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건물의 진동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댐퍼를 외부인이 볼 수 있는 댐퍼의 기능에 대해 안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01 타워'가 자랑하는 또 하나는 2004~2015년 세계 기네스북(Guinness Book of

Records)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Elevator)로 기록되어져 있는 전망대용 엘리베이터로, 분당 1,010m의 속도로 89층 전망대로 수직 상승한다. 타워의 5층에서 89층의 전망대까지 37초 걸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지러움 증으로 가벼운 두통이 느껴질 정도였다.

2일차 (4월 25일)

- 베이더우 공립 도서관(Taipei Public Library Beitou)

대만이 자랑하는 베이더우의 공립도서관은 타이페이 최고의 녹색 도서관으로 아름다운 숲과 연못이 있는 베이더우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카페처럼 조용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2009년에는 타이페이의 녹색도서관이 친환경 건축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5선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특히 베이더우 공립 도서관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며,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서관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개념의 건물들이 많이 건축되길 기대해 본다. 구체적으로 조명을 위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을 크게 하였으며, 지붕은 전기 생산 설비로 전기를 만들고, 빗물저장 설비로 빗물을 변기 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 도서관으로 불리는 것 같았다.

- 온천 박물관 방문

베이더우 공립도서관 바로 옆에 "베이더우 온천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1910년대 대만을 통치하던 시절 일본이 조성해 놓은 대중 온천탕이었다고 한다. 1945년 이후 일본인들이 철수한 후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있던 곳을 1990년대 지역 주민들의 탄원으로 유적지에서 현재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박물관이나 건축물처럼 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들의 역사와 환경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직접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 지열곡 방문

지열곡(地熱谷)은 마치 지옥과 같다 하여 '지옥곡(地獄谷)' 또는 '귀호(鬼湖)'라고도 불리었으며, 베이더우 공원 옆에 위치한 베이더우 온천의 수원지 중 하나로 뜨거운 온천물과 주위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 자욱한 유황 연기를 내뿜는다. 지열곡은 물빛이 매우 맑은 옥색이고 항상 신비로운 수증기가 자욱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타이완의 8승12경(八勝十二景)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곳의 돌은 라듐 성분이 포함된 베이더우석(北投石)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이완 지명으로 명명된 희귀한 광물이라고 한다. 지열곡은 수온이 약 80~100℃로 다둔산(大屯山) 화산 지역 내에서 수온이 가장 높은 온천으로 타 지역의 온천지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사람들이 계란을 가져와서 뜨거운 온천수에 익혀 먹기도 했던 장소였으나, 현재는 안전상 계란을 익혀 먹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온천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난간을 설치하였다.

-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국립고궁박물관은 수도 타이페이에 위치한 역사 유물 박물관으로 중국의 국궁내전시기인 1948년에 장개석 총통이 중국의 베이징 자금성에 소장하고 있던 대부분의 유물 29만점과 중국 지방의 유물 69만 8,000여 점을 옮겨와 타이완의 타이중 등지에 임시 보관하고 있던 것을 1965년 11월 12일에 타이페이에 박물관을 건축 후 유물들을 재전시하고 있다. 사실상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유물은 국부천대 당시 장개석 국민당 총재가 모든 유물을 옮겼기 때문에 주인은 타이완 정부가 아니라 중국 국민당이다. 당시 장개석 국민당 총재는 중국의 전통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신문화운동으로 인한 유물들의 유실을 방지하고 중국 문화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 전역에 분산되어 있던 값진 유물들을 모아 대만으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보다 타이페이 고궁의 유물들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대만 고궁박물관의 유물들은 청나라 황실에서 대대로 전해진 황실 유물들로 중국사를 대표하는 유물이기 때문이다.

3일차 (4월 26일)

- 지우펀 옛거리 방문

지우펀(九份)은 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산자락에 위치한 타이완 북부 신베이시(新北市)루이팡구(瑞芳區)에 있는 마을이다. 지우펀의 역사는 어둠이 내려앉은 밤, 청나라 때 지우펀은 아홉 집밖에 없던 외진 산골 마을이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도시로 내려와 항상 아홉 집 것을 함께 구입해 아홉 개로 나뉘었다고 해서 '九份', 즉 지우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우펀은 해안의 산맥에 접해있기 때문에 거리의 도로들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좁으며 구불거리는 형태이지만, 타이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들 중 하나로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타이베이를 거쳐 이곳을 찾고 있다.

- 국립야류해양공원 방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오랜 세월 화산과 해류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인한 자연의 힘과 침식에 의해 생성된 특유한 형상의 모습이 이색적인 타이페이 국립야류해양공원(野柳地質公園)은 1,100만년 동안 지속되는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자연이 조각해 놓은 아름다운 장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1,700m에 이르는 해갑은 타이완 북부의 가장 유명한 지질공원이 되었다. 이 해양공원 침식과 해풍으로 인해 지형이 점점 변형되고 있다고 한다. 파도의 침식과 풍화 작용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자연의 조각품이 신기하면서도 오묘한 분위기가 풍겨졌다. 대표적인 형상의 선상암은 외관이 하늘을 떠받치는 듯 버섯모양을 하고 있으며, 초의 심지와 석회석이 결합해 이뤄진 여러 가지 형태의 작은 구멍들이 있는 벌집암석, 촛대바위, 여왕머리바위, 그리고 해수와 지층의 압력



으로 침식되어 울퉁불퉁한 형태의 생강석 등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하였다.

- 스펀 방문

스펀(十分)은 기차역이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으나 과거에 지진이 발생하였을 당시 관청에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대가 10분 내에 도착하여 사상자들을 구조하였다고 하여 명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차역 주변에서 방문객들의 소원을 비는 천등을 하늘로 날리는 이벤트에 참가하여 우리 부산지회 회원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종이에 붓으로 손수 써서 스펀 하늘로 날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4일차 (4월 27일)

아쉬움을 남긴 채 3일간의 대만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에서 조식 후 타이페이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수속을 마친 후 부산행 항공기 탑승하여 무사히 김해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번 사)한국조경수협회 부산지회 창립20주년을 기념하는 해외선견지 견학을 통해 협회의 회원들 간의 자발적 소통으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한국조경수협회 부산지회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부산지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견지 견학을 마치는 간담회에서는 부산지회의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이와 같은 견학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활성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끝으로 창립20주년기념 선견지 견학을 진행하면서 부산지회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환경을 아름답게, 삶을 풍요롭게. 모범농장에서 배운다. 경기지회 「성우조경」

글 · 사진 한국조경수협회 이사 / 경남중부지회 박정기

‘성우조경’은 경기지회 회원사 농장이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383-2번지와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95번지에 농장이 있고, 약 4.6ha 면적을 가진 충남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231-7번지 제1농장이 주력 재배포지이다. 총 6ha에 소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13,000여 우량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자 없는 나무, 친절함 농장’으로 정평이 나있다. 성우조경 제1농장은 수도권 자연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교통 여건도 좋아 소비처에 식재한 수목의 적응력은 물론 물류비용 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다.

‘성우조경 최기용(崔基鎔) 대표’는 2001년에 우리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들에게 조경수 생산과 유통정보 제공은 물론 조경인의 친목과 기술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최 대표는 199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형님의 조경회사 현장 일을 도우면서 조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조경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굴취, 식재 및 후관리에 대한 실무를 익히며 부가가치 높은 조경수를 재배하여 공사에 투입하겠다는 목표로 2000년 4월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에 1ha 포지를 임대하여 향나무 1,000주, 단풍나무 300주를 심으면서 조경수 농장의 꿈에 도전하게 되었다.





최 대표는 2001년 안산시에 1ha 포지를 추가 임대하여 왕벚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등 추가 식재 하며 성우조경을 설립하였고, 2006년 지금의 제1농장 산을 매입하여 소나무, 단풍나무, 목련, 주목, 에머랄드그린 등 30여종을 재배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조경수 생산단지를 완성하였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성우조경 은 사무실이 없고, 면허가 없고, 빛이 없어 삼무(三無) 농장으로 불린다. 게다가 ‘특수목’으로 불리는 조경수가 없고, 평소엔 ‘남의 손’이 없으니 오무(五無) 농장이다. 수목원 보다 아름다운 농장 구석구석 최기용 대표의 시간과 정성이 묻어난다.





조형소나무, 블루애로우, 주목, 향나무'가이즈카', 노각나무, 공작단풍, 목련, 수사해당, 산수유, 산딸나무 재배포지

정원수와 조경수 경계를 공략한다. 소교목, 대관목, 화목, 배색수목, 서양측백 계통의 주택정원, 상업공간, 공원조경 등 수요처 많고 거래빈도가 높은 수종을 재배한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 수종과 규격을 재배한다. 관수, 전정, 방제, 시비 품이 적게 드는 수종과 작업능률이 높은 중·소 규격 수목을 재배한다.

뒤처지는 나무 없는 농장을 만든다. 근경(R) 3cm 이내 치수(稚樹)를 넉넉한 간격으로 입식(入植), 5cm 부터 출하하되 10cm 이상은 이식하여 성장력을 늦춘다.

농장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재배수종 간 친소관계와 생육환경, 성장력, 출하시기에 따라 종조성과 경관을 고려하여 배식(配植)한다.



종조성과 경관 및 포지이용 효율을 고려하여 식재한 재배포지



형(形) 색(色) 촉(觸) 향(香) 수형미, 색깔, 촉감과 질감, 향기가 도드라진 수종을 선정하여 재배한다.

농로(農路)는 원로(園路) 특수목, 자연석, 조형물, 수경관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동선을 따라 경관을 부여하였다.

농장은 정원이자 실험장 농장은 공장이 아니라 정원이자 성장력, 적응력, 식재디자인을 연구하는 실험포지이다.



농장이 경쟁력 지형과 토질을 잘 분석하여 길을 내고 구획하여 작황을 한 눈에 읽을 수 있고 인력 및 장비 작업이 매우 용이하다.

시장에서 잘 먹히는 수종 시장성을 읽고 입식하면 처지는 나무가 없다. 과천·옥천 발(發) 유튜브를 보고 조경수 흐름을 파악한다.

수익의 50%는 재투자 생산과 공사를 병행하는 최 대표는 수익의 절반을 농장 기반시설 정비, 농기계 구입, 신규입식에 투자한다.

친환경 수목관리 페비닐, 퇴비포대, 농약병 분리 배출하고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으며 고사목과 전정부산물 파쇄 하여 멀칭재로 쓴다.



친환경 제초 : 초장 짧은 초본 피복, 관목 가식장 활용, 파쇄목 멀칭



조경수는 주인을 닮는다. 종물은 주물을 따른다. 성우조경 농장의 나무들은 한결같이 최기용 대표를 빼닮았다. 당진상고를 졸업한 최 대표는 의무경찰 전역 후 한불화장품에 입사했다. 서울 테헤란로에서 잘 나가던 화이트칼라는 지금은 모범농장 주인이다. 수리(數理)에 밝고 마케팅을 알며 온화한 성품과 준수한 용모는 그대로 자신이 키우는 나무에게 전이되었다. 그래서 성우조경 나무는 어디 한곳 빠지는 구석 없는 언제나 A+ 상품(上品)이다. 삼 한 자루로 시작하여 농장과 현장에서 알토란같은 소득을 창출하는 최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혜안과 특유의 부지런함을 가졌다. 특히 200~300주 단위로 입식하여 3~4년 내 발을 비우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농장경영 노하우는 시사점이 크다. 그 과정에 앞서 시작한 형님의 기술 전수와 내조자로서 또 동반자로서 아내의 역할은 시너지가 되었다. 살아 있는 나무를 다루는 조경의 속성에 비추어 가족의 힘이 읽힌다. 구색은 많은데 오래된 큰 나무는 없고, 농장은 넓은데 빈 공간이 없고 그렇다고 밀식된 나무도 없으며 곳곳에 입식, 또 출하를 앞두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살아있는 농장임을 실감케 한다.



식재지반 깊이같이 경운을 하는 트랙터에 채바가지(버킷) 장착하여 돌을 제거 한다.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해 끈끈이트랩을 곳곳에 설치하였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토지 효율성과 작업 능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최기용 대표는 성공한 조경인이자 임업후계자이다. 환한 미소로 “취미가 직업이 되면 일이 즐겁고, 경제적 가치(돈)만 생각했다면 이런 농장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에 성우조경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것 같았다. 🌳



성우조경

충남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258-24

농장 :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231-7(제1농장)

전화 : 041)358-2131 메일 : cky804@hanmail.net

휴대전화 : 010-3322-0051(최기용)

다섯 번째 이야기 이팝나무



이노혁

조경 특급기술자



국내 최고령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제 185호 이팝나무

지정년월일: 1967. 7. 16

소재지: 경남 김해 김해대로1472길 (한림면신천리)19-2

수령: 약 650년 높이: 약 15m

이팝나무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는 물푸레나무과 이팝나무속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팝나무와 이의 변종인 긴잎이팝나무 2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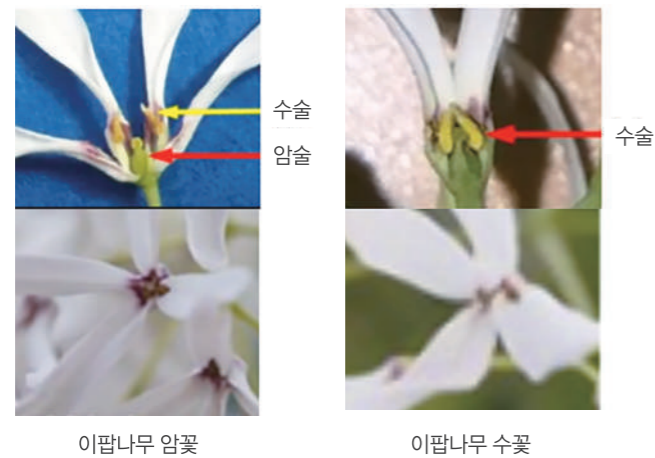
이 나무는 높이 30m까지 자랄 수 있는 낙엽 활엽 교목이다. 이팝나무는 내한성 내염성 내공해성 맹아력 이식력이 강하고 토양은 습기가 많고 배수가 잘되며 비옥한곳을 좋아한다. 건조에는 약한 편이고 성장속도와 음양성은 보통이다. 이팝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인 자웅이주(雌雄異株)의 나무이다. 꽃잎 모양이 같아 외견상으로 구분이 어렵고 꽃이 필 때 암꽃과수꽃을 현미경 관찰과 열매가 달리고 안 달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꽃은 5월 초순에 (2023년에는 4월 20일경 개화시작) 아까시나무 꽃이 필 때 백색으로 깨끗하고 소담스럽게 피며 20일정도 지속되어 벚꽃나무류 목련류 수수꽃다리류 개나리등 보다 늦게 피고 2~3배 오래 지속된다. 꽃은 수나무가 더 많이 피는 것 같다.

이 나무의 세계적인 분포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에만 있는 희귀종에 속한다. 자생하는 국내 분포는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어청도포함)의 일부지역과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에도 소수량이 자생한다. 이 나무는 자연번식력이 약하여 몇 백 년씩이나 된 모수가 여러 지방에 있고 내한성이 강함에도 산야에 야생하는 것이 예상외로 극히 적은편이다. 옛날에는 양묘기술이 부족하고 발아 촉진법이 까다로워 인공재배를 하는 곳도 없었다.

필자가 한국도로공사에 있을 때인 1985년경에 전주 묘포장에 재배계획을 수립 지시하여

1993년부터 고속도로변과 인터체인지에 조경용으로 최초로 대량공급 하면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민간 양묘가 성행하였고 한 때는 중국에서 묘목을 수입하여 육성 보급하기도 했다. 현재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 에서 공원수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여 어느 곳을 가던 이팝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나무 꽃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류 목련류 등 이른 봄꽃이 지고난 후 나무들이 잎이 피었을 때 오랜 기간 피는데다가 나뭇잎 위에 쌀밥을 수북이 덮어 놓은 것처럼, 나뭇잎 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관상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다. 가로수 형태로 이팝나무를 최초로 식재한 곳은 1993년 호남고속도로 전주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당시는전주묘포장) 입구 인 것으로 본다. 현재 이팝나무의 자생종은 산기슭, 해변가 및 민가부근에 있는데 그 수량이 희소한 편이다. 2022년 말 현재 천연기념물 (天然記念物)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은 국가지정 8곳과 지방지정 6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팝나무를 영문으로는 Chinense fringe tree, Retusa fringetree{또는 snow flower (눈꽃나무)}, 중국어로는 리유수슈(流蘇樹){또는 육도목(六道木), 다엽수 (茶葉樹)}, 일본어로는 히토스바타고, {또는 육도목(六道木),다엽수(茶葉樹)}라 한다.



이팝나무 암꽃 이팝나무 수꽃

이팝나무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과 자기 향상 이다.

■ 이팝나무 이름의 유래

이팝나무꽃은 나뭇가지 잎 위에 쌀밥을 수북이 덮어 놓은 것 같다하여 이밥나무 (지금의 쌀밥을 옛날에는 이밥이라 함)라 한 것이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과 1년 24절기는 농경사회 시대에는 매우 중요시 하였는데 벼농사의 시작인 벼 못자리가 시작되는 절기가 여름의 시작인 입하(立夏)인데 양력으로 5월5일 이나 6일 이며 이때 이팝나무 꽃이 핀다하여 즉 입하목(立夏木)이라 한 것이 표준어로 이팝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꽃 꽃 근경 잎 단풍

■ 이팝나무의 다른 이름 (식물명이 표준화되기 전에는 방언이 많았음)

- 이밥(니밥)나무: 꽃이 쌀밥 모양과 같다하여 이밥나무라 하였다.
(현재도 쌀밥을 이밥 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음)
- 니암(이암)나무: 전북 진안군 지역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쌀밥나무 라는 뜻
- 뺏나무: 이팝나무의 열매와 씨가 뺏나무 (뺏나무)의 열매와 씨가 비슷하여 뺏나무 라 하며 전북 진안과 어청도 지방 등에서 사용 하든 말이다.
- 입하목(立夏木): 과거에 우리나라는 24절기를 중요시하였는데 입하(立夏) 때 꽃이 피기 시작하므로 입하목(立夏木)이라 하였다.
- 육도목(六道木): 사람이 죽어서 입관을 할 때 옛날에는 관속에 노жат돈 대신 쌀을 넣어주는 것을 육도미(六道米) 라 하였는데 쌀이 귀해서 이팝나무 꽃을 말려두었다가 쌀 대신 육도미(六道米)로 사용하여 육도목(六道木) 이 되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팝나무를 육도목 이라고도 한다.

- 밥태기: 관목인 박태기나무도 바풀떼기를 붙여 놓은 것 같다하여 박태기라 하였듯이 쌀밥을 붙여 놓은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기상목(氣象木) 또는 천기목(天氣木): 이팝나무는 습기를 좋아하여 습기가 많으면 꽃이 많이 피고 오래 가듯이 비가 많이 와주면 풍년이 들고 그 반대면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나무 꽃의 풍흉이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기후의 지표로 삼았다.

■ 이팝나무에 얹힌 전설

1. 고부(姑婦)갈등에 얹힌 전설

아주옛날 경상도의 어느 산골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하고 마음씨고운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옛날 시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오늘날과 같이 며느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적어서 며느리들을 구박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집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조상님의 제사 날이 되어 쌀밥을 짓게 되었는데 이 며느리는 가난하게 살아서 쌀밥을 지어본적이 없어 시어머니 한테 구박을 받고 조상님들께 죄가 될 것이 걱정되어서 뜸이 잘 들었는지를 보기 위해 솥 뚜껑을 열고 밥알 몇 개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들키었다. 평소 구박이 심했던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조상님께 올릴 밥을 먼저 먹었다고 큰 소리로 난리를 치고 동네사람들 에게 소문을 내어 낫을 들고 살수가 없어 동산에 올라가 목을 매어 죽었다. 그 후에 그 무덤 뒤에서 못 보든 나무가 자라드니 몇 년 후에는 모내기철만 되면 쌀밥을 엮어 놓은 것 같은 흰 꽃이 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쌀밥에 한이 맺혀 죽은 며느리의 혼이 이 나무를 만들었다 하여 이팝나무라 불렀다 한다.

2.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효심에 관련된 전설

옛날 가난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효심이강한 총각 선비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어서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아들에게 “애야 쌀밥이 먹고

십고나”하였더니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곧 밥을 지어올게요”하고나서 쌀독을 들여다보니 쌀이 조금밖에 없어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만 쌀밥을 드리고 내가 잡곡밥을 먹으면 어머니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효심이강한 아들이 생각하기를 마침 입하(立夏) 때가 되어 집주위에 있던 이팝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어 꽃을 따서 내 밥그릇 위를 덮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꽃을 따서 잡곡밥 위를 덮었다.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어 저녁밥을 먹을 때는 호롱불을 켜고 먹든 시절이기 때문에 어둠 어둠 했을 때다. 어머니를 일으키면서 진지 드시지요 했더니 일어나셔서 흰쌀밥이 먹음직스럽구나 하시면서 많이 드시고는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셨다. 효심이 강한아들은 밑에 있는 잡곡밥과 위를 덮은 이팝나무 꽃을 먹으면서 활짝 웃었다 한다. 이 즈음에 이곳을 지나던 원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감동하여 가난하고 효심이 강한 시골 선비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이 소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그 나무를 이밥나무 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3. 모성애와 정조에 관한전설

오지의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 인근 마을을 다니면서 풀을 팔고 음식을 얻어다 아이들을 먹이고 사는 중 이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쌀밥을 구해다 아이들을 먹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길을 나서 산 고개를 넘고 걷고 걸어서 쌀농사를 짓는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해주고 쌀밥을 얻어 오다가 조금 뜯어먹어 보니 부드럽고 향기가 있고 맛이 참 좋음을 느꼈다. 이밥을 아이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할 가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힘든 줄도 모르고 걸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고개 마루에 도달하자 산적이 나타나서는 누구냐고 묻자 이 아낙네는 고개 넘어 산골 마을에 사는 가난한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산적은 머리위에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아이들에게 줄 쌀밥이라고 하니 그것을 내려 노라 고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우리 애들한테 갓다먹어야 한다면서 밥 소쿠리를 더 짹 움켜쥐었다. 산적이 그것을 빼앗으려 승강이를 하면서 어머니의 치마와 속옷이 벗겨졌다. 산적은 쌀밥 소쿠리를 주지 않으면 네 몸을 취하겠다고 하며 자기 바지를 벗어 집어 던지고 강간을 하려 했다. 이때 어머니는 안 돼요 라면서 하느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

하였다. 잠시 후 천둥과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두 사람은 죽어버렸다. 그 후 산적은 바위가 되고 어머니는 쌀밥을 엮어 놓은 것 같은 키 큰 나무가 되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쌀밥 나무 즉 이팝나무라 한 것이 이팝나무가 되었다 한다.

4. 농사의 풍흉 예측설

1년 24절기인 입하 때는 각종 작물을 파종하고 쌀농사인 벼 못자리를 시작할 때 인데 이팝나무 꽃이 풍성하게피면 그해에 풍년이 들고 풍성하게 피지 못하면 흉년이 든다고 예측하였다. 이팝나무는 습윤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잘 와주면 이팝나무 꽃도 잘 피고 오래가고 논 농사도 비가 많이 와주면 벼가 잘 되어 풍년이 된다는 것은 맞는 원리 이므로 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저수지가 없어 특히 쌀농사는 강수량에 좌우 되었었다.

■ 이팝나무 종류와 구분

이팝나무 종류에는 이팝나무와 이의 변종인 긴잎이팝나무가 있다. 이팝나무는 황해도 이남에서 자라고 있고 긴잎이팝나무는 제주도에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이점은 긴잎이팝나무의 잎은 길이와 넓이가 평균적으로 이팝나무의 절반 크기정도이고 꽃잎 넓이도 절반정도로 좁은 편이다.



■ 이팝나무의 용도

이팝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세균이 발달하여 이식이 잘되고 공해 내염성이 강하고 병충해도 비교적 강하다. 건조한 곳엔 다소 약한 편이나 토심 토성 토질이 보통이면 식재장소를 가리지 않는 편이다. 또한 꽃이 깨끗하고 화사하며 봄꽃 나무들이 꽃이 진 다음 꽃나무 꽃이 귀해질 때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어 조경수(정원수 관상수 공원수 특히 가로수 등)로서 가치가 높아 모든 화목류를 압도하고 있다. 1970~2000년경에는 왕벚꽃나무 식재가 대유행이었고,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이팝나무식재가 대유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잎은 건조시켜 차로 끓여 먹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다엽수(茶葉樹) 즉 차나무라 고도 한다. 부드러운 새잎은 나물로 식용한다. 목재는 염료재와 기구재로 사용 하고 생약명은 해선(海仙), 말린 열매는 중풍 사지마비 치매 말라리아 강정 간염 황달 등에 사용하고 가래 삭힘에도 효과가 좋다 한다.

■ 이팝나무 번식법

이팝나무는 주로 실생묘(종자로 기른 묘)로 생산 한다. 유실이나 모수의 특별한유전적 가치를 이어받을 필요성이 없고, 삼목이나 접목법으로는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본란에서는 실생법(實生法)에 대해서만 설명기로 한다.

* 종자채취 및 정선: 9월 하순~10월에 완숙된 열매이삭을 가위로 자르거나,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장대 털기로 하고 양지쪽에서 열매과육을 완전 건조시켜 비벼서 씨를 수득 할 수도 있고, 열매 과피를 부숙시켜 장화신고 밟아 우깨어 5mm 철망 체를 흐르는 물에 넣고 가벼운 티 김볼은 물위로 띄워 떠내려가게 하고 모래 같은 불순물은 밑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종자를 수득 한다.



* 종자저장 및 발아촉진: 건조시켜 보관했던 종자는 11월에 노지에 파종하여도 되나 종자의 이중휴면성(二重休眠性)으로 다음해에 발아되지 않아 파종지의 잡초제거 인건비와 잡초뿌리 뽑을 때 종자 손실, 상주피해, 두더지등의 피해가 발생 하므로 좋은 편은 아니나 노천매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있다. 인건비를 절약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2년 겨울 노천매장 하였다가 봄에 파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노천매장은 옛날에는 나무 상자를 짜서 사용했지만 근년에는 양파 망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매장 시기는 11월 하순이나 12월초에 하면 되는데 종자와 깨끗한 모래를 1:3으로 혼합하는데 조로 로 물을 뿌려가면서 한다. 이때 습기는 모래와 종자를 쥐었을 때 손바닥에 물기가 약간 묻을 정도면 된다. 망에 든 종자는 배수가 잘되는 양지쪽 땅에 묻는데 매장깊이는 40cm이내, 넓이는 수량에 따라 다르며 종자 망 상단부가 지면보다 5cm정도 낮으면 되고 종자 망 바닥, 측면과 상부에는 깨끗한 모래를 3~5cm정도 채우고 1cm 철망을 덮고 지면에는 해가림 차광 망을 2~3겹 정도 덮어 주는 것이 좋다. 파종준비 시기 직전까지는 종자 망을 열어 보면 안 된다. 산소가 공급되면 발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 파종상 만들기: 파종상은 잣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파종상 만드는 것과 같으며 파종상 만들 때는 필히 토양살충제와 기비를 뿌리는 것이 좋다. 포지 선정은 건조한곳 보다 배수가 잘되고 습윤한 곳이 좋으며 보통인 경우 상 높이는 5cm, 습한 곳은 7cm정도가 적당하다. 상 폭은 0.9~1.0m로 하고 상 기리는 사업량에 따라 다르나 20m 이내로 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좋다.

* 종자파종: 종자파종은 줄뿌림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1m기리에 골을 8~10 개를 타고 깊이는 4cm정도로 하고 1m2당 종자 100g정도를 골고루 놓고 3cm정도 흙을 덮고 손바닥이나 판자로 두들기고 다시 흙을 1cm정도 종자위에 덮이도록 한다. 파종상위에는 상면의 건조방지를 위해 차광 망을 덮어야 하며 4주 정도면 종자가 발아되므로 이즈음에는 매일 살펴보고 지상발아가 10% 정도 확인되면 오전에 물을 충분히 주고 오후에 차광망 을 걷는 것이 좋다.

* 발아후의 관리 및 생산: 잡초제거 시 유묘가 같이 뽑힐 수 있으니 조심 하여야 하고, 일기예보를 듣고 가급적이면 제초작업 간격에 관계없이 제초 시기가 조금 빠르거나 늦더라도 비가 오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건 초기에는 작업 전일에 관수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면 풀

뿌리가 잘 뽑힌다.

추비는 복합비료를 6월초에 80g정도, 7월 중순에 120g 정도를 골고루 뿌리데 이슬이 없을 때 주어야 한다. 생육상태에 따라 10~20% 증감 요하며,

숙음작업은 6월 초순부터 7월 중순 까지 밀생된 곳은 2회 정도 숙음하여 80~ 100본 정도를 생산하도록 한다. 산림청 기준으로는 81본을 존치 하였다가 최종 간장17cm이상 근원경 4mm 이상 건실한 묘목을 62본 생산하도록 한다. 조경용 묘목은 용재생산 목적이 아니므로 산림청 규정을 안 따라도 된다.

* 참고: 이팝나무 순량율-95% 발아율-60%효율-57% L당 입수-1064 개 m2당 파종량-109g 🌳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 입구 이팝나무 가로수(재배 수로는 국내 최초 조성)

조경수 유지관리 수목진단 장비와 실제



정규중
나무의사

(주)장안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1. 수목의 진단

수목을 진단하는 위해서는 수목의 기본적 성질을 이해하여야 하고 수종의 고유의 특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진단(diagnosis)의 과정은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의 귀납법을 사용하거나 의심되는 병을 근거로 하여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목의 진단은 병의 발생원인이 복합적이며 다양함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방법에 의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병의 발생원인을 크게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생물적 요인은 기후적 요인, 토양적 요인, 인위적 요인으로 나누고 생물적 요인은 전염성병(infectious diseases)과 해충의 피해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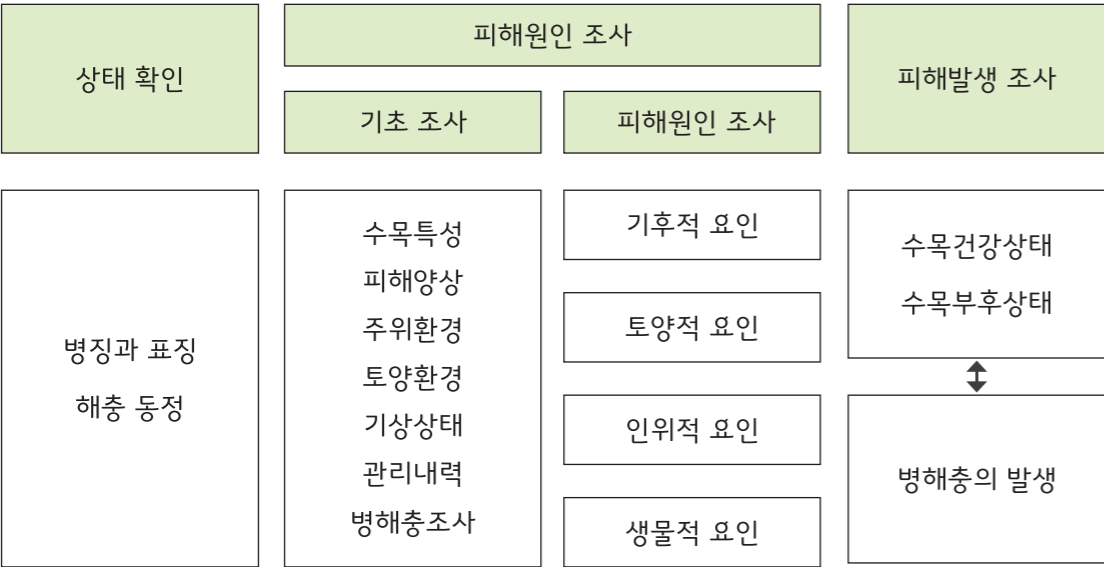
그러나 다양한 수종을 다루어야 하는 수목진단은 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수목의 면역체계를 고려해 봤을 때 수세가 약한 수목은 병의 발생이 빈번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수목진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병해충을 발견 했을 때 이를 수목병의 발생의 원인이라 쉽게 판단하게 되면 방제 이후에 다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목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발병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1.1 진단 과정

수목에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병징이라고 한다. 병징이 지속되면 결국 쇠약해지거나 고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수목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목의 생육환경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식재한지 오래되지 않은 나무인지, 아니면 자연 발아하여 성장한 수목인지, 어린 묘목으로 식재된 수목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수목을 이식할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피해와 수목의 뿌리에 대한 절단으로 인한 생리적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연발아되거나 묘목식재로 오랜 시간 환경을 극복하며 성장한 수목이 아닌 어느 정도 자란 수목식재는 절단된 뿌리와 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여 수목의 면역체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많은 병해충의 발생을 가져온다. 수목의 병징을 확인시에는 수목의 특성에 주목해야하는데 수목이 내건성인지 내습성인지, 심근성인지, 천근성인지, 척박한 토양에 잘 견디는지, 아니면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오랜 시간 그 곳에서 자란 나무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이다. 잘 살고 있는 수목의 예상치 못한 이상 증상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목의 주변환경은 토양환경, 기후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토양환경의 변화는 토양의 복토, 절토, 토양침식 등을 의미하며, 기후환경의 변화는 강수량, 적설량, 최고온도, 최저온도와 그리고 그 지속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관리상태이다. 병·해충을 제외한 생리적 장애로 발생한 병의 진단은 간단치 않다. 수목은 사람처럼 진단 전에 아픈 곳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수와 비료, 농약살포 등 관리시기와 횟수 등의 기본적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병징의 근본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원인에 의해 수목이 쇠약해지고 병과 해충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목의 치료는 2차로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 수목이 쇠약해지는 근본원인을 제거해야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표 1〉 수목의 진단과정

1.2 진단 장비

수목의 건강상태를 진단장비 중에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한 병·해충을 제외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수목생육기반 조사와 수목의 활력도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수목의 건강상태와는 달리 수목의 부후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있다.

(1) 생육기반 진단

우선 수목생육기반 조사는 토성, 토양경도, 토양수분, 토양온도, 토양 EC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토성은 촉감법에 의해 간의로 조사가 가능한데 뭉쳐지는지, 띠가 형성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띠의 길이	촉감	토성
2.5cm 이하	매우 거칠다.	사질양토
	거칠지도 부드럽지도 않다.	양토
	매우 부드럽다.	미사질 양토
2.5cm < 띠 < 5.0cm	매우 거칠다.	사질식 양토
	거칠지도 부드럽지도 않다.	식양토
	매우 부드럽다.	미사질 식양토
5.0cm 이상	매우 거칠다.	사질 식토
	거칠지도 부드럽지도 않다.	식토
	매우 부드럽다.	미사질 식토

〈표 2〉 촉감법에 의한 토성의 분류

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토나 양질사토이다. 이런 토양은 물빠짐이 좋아 뿌리의 산소가 공급되지만 물과 양분의 보유력이 낮아 건조현상과 영양결핍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띠가 만들어지면 양토가 중심이 되고 길이에 따라 토성을 구분할 수 있다. 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토함량이 높아지는 식토에 가까워지며 길이가 5cm이상 길어지면 물과 양분의 보유량이 높으나 산소의 공급이 되지 않아 세근의 고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사토일 경우에는 지속적인 물과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점토가 많은 식토의 경우,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토양경도는 토양층의 딱딱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토양, 즉 공극률이 약 50%정도 되어야 수목의 물과 양분 그리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답압으로 인해 공극이 축소되어지는데 비가와도 이러한 공극량은 줄어들게 된다. 더욱 문제는 지표면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래로 답압이 진전된다는 것이다. 답압은 대지의 겉표면부터 시작되며 약간의 답압에도 물이 침투하기 어려워진다. 토양의 지속적인 관리는 이러한 경화된 토양의 깊이만큼 경운을 하여야 한다.



〈그림 1〉 토양경도계



〈그림 2〉 토양수분측정기

경도(mm)	내용
18mm이하	수목의 생육이 가능함
18~23mm	수목의 근계생장이 가능함
23~27mm	수목의 생육이 양호하지 않음
27mm이상	수목의 생육이 불가능

토양수분측정기는 토양수분 및 토양온도 그리고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토양수분은 토성에 따라 포장용수량이 다르겠지만 약 25%를 기준으로 하며, 10~15%이하가 되면 건조 상태로 수분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토양온도는 양분흡수를 위해 약 25℃가 적당하므로 측정된 수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토양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수분공급으로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하며, 온도가 낮으면 멀칭으로 온도를 높여야 한다.

(2) 활력도 진단

수목활력도 측정장비는 잎과 가지 그리고 뿌리로 구분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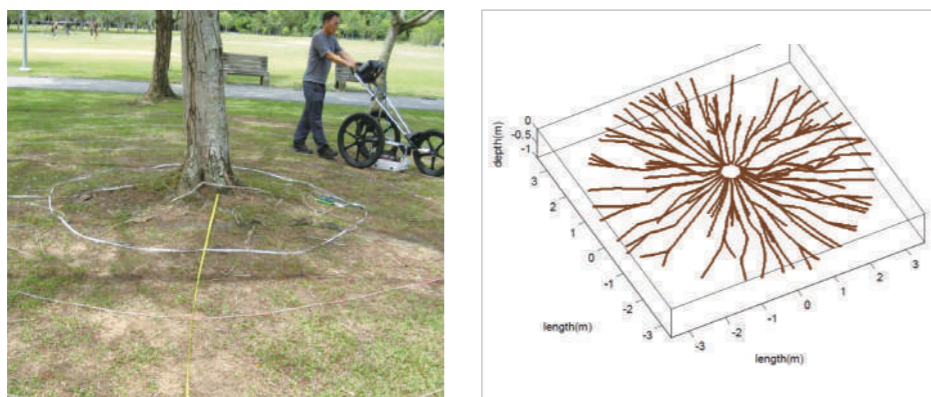
잎을 측정하는 장비는 광합성을 위한 엽록소를 분석하여 측정하는 장비로 엽록소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활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줄기를 측정하는 활력도 측정 장비는 형성층의 생육이 왕성할 때 세포내 수분과 수분에 녹아있는 이온량이 높아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 저항이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뿌리의 생육활력을 측정하는 장비는 토양내 뿌리의 형태와 발육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로 물의 전자파를 반사 또는 흡수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잎, 줄기, 뿌리의 생육활력을 측정하는 장비를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 엽록소량을 측정하는 장비; SPAD



〈그림 4〉 형성층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장비; shigometer



〈그림 5〉 뿌리의 생육정도를 확인하는 장비; Tree R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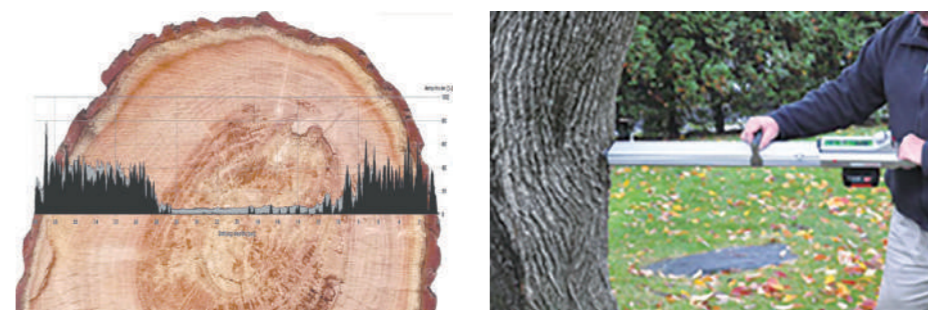
(3) 부후상태 진단

마지막으로 수목의 부후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수목의 상처부위로 곰팡이균이 침입함으로써 목질부의 부패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환경적 외압에 의해 전도되거나 부러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목의 상처부위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형성층이 상처부위를 덮게 되면 안쪽이 부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멀쩡한 나무도 안쪽은 썩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후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로는 나무망치, 성장추, 마이크로드릴, 송수신기를 활용한 음파측정장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무망치로 측정하는 방법은 나무망치로 수목을 두드린 다음 빈공간이나 수피가 느슨한 곳에서의 음질의 변화를 경청하는 방법이며, 성장추는 코어를 뚫어 부후의 특징을 시각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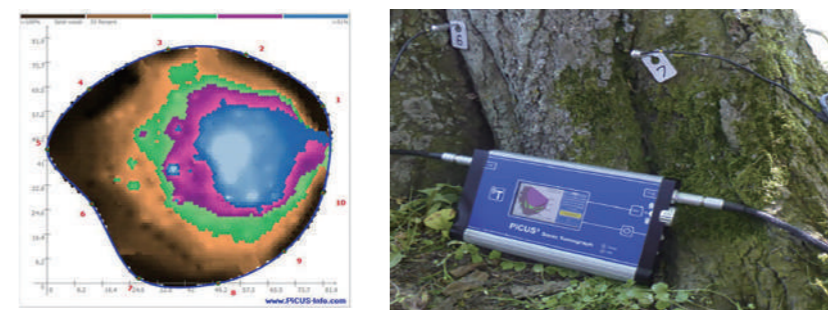
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드릴은 1~3mm의 침이 목재를 통과하면서 회전되고 진행됨에 따라 받는 침투저항성을 그래프로 기록하여 초기 부후단계보다는 부후가 진행되었거나 중간 단계의 부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선적인 확인이 가능한 장비이다. 음파측정장치는 음파가 수간의 한쪽으로부터 다른쪽에 있는 송수신기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비로 부패가 진행된 곳은 소리의 전달이 빠르나, 건전한 목재는 도달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을 이용한 장비이다. 🌳



〈그림 6〉 나무망치와 성장추에 의한 부후상태 진단



〈그림 7〉 마이크로드릴에 의한 부후상태 진단



〈그림 8〉 음파측정장비에 의한 부후상태 진단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네 번째 이야기
Genus *Hydrangea*



김종근

글/사진 :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 www.plusgarden.com

수국 '함부르크'
Hydrangea macrophylla 'Hamburg'



Hydrangea macrophylla 'Hamburg'
수국 '함부르크'



수국 '함부르크' 개화 초기 모습

키가 약 1.2-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란다. 꽃은 6-8월경 무렵 처음에는 연녹색에서 연한 하늘색을 띠지만 점점 자줏빛 파란색으로 변하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얇은 톱니가 발달한다. 꽃차례는 풍성하며 작은 무성화들이 모여 반원모양을 이룬다. 산성토양에서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파란색, 알칼리성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띤다. 점차

시간이 지나 가을철이 되면 와인빛 빨간색의 매력적인 색으로 변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풍성한 꽃차례를 잘라서 화병에 꽂아 두거나 거꾸로 매달아 건조시킨 후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하면 실내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수국 '하나비'
Hydrangea macrophylla 'Hanabi'



Hydrangea macrophylla 'Hanabi'
수국 '하나비'

키가 약 1-1.2m까지 작고 단정하게 자라며 6-8월경 겹으로 피는 가짜꽃이 매력적이다. 우산모양의 꽃차례 중심부에는 자잘한 유성화가 모여 피고 바깥쪽으로는 무성화가 방사상으로 핀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

는 거의 밋밋하지만 간혹 얇은 톱니가 발달한다. 꽃의 색깔은 다른 수국류와 마찬가지로 산성토양에서는 파란빛을 띠고 알칼리성토양에서는 붉은빛을 띤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수국 '햇필드 로즈'
Hydrangea macrophylla 'Hatfield Rose'



Hydrangea macrophylla 'Hatfield Rose'
수국 '햇필드 로즈'

키가 약 1.2-1.5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이다. 6-9월경 둥글게 모여 피는 꽃받침 조각은 장밋빛 자주색을 띠며 가장자리에는 두드러진 톱니가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붉은 색상을 띠지만 산성토양에

서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약간 그늘지면서 습도가 높은 숲정원에 심으면 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하인리히 세이델'
Hydrangea macrophylla 'Heinrich Seidel'



Hydrangea macrophylla 'Heinrich Seidel'
수국 '하인리히 세이델'

수국 '글로리 오브 알스메르'(H. m. 'Glory of Aalsmeer')로도 유통되는 수국 품종으로 약 2m까지 비교적 크게 자란다. 꽃은 6-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파란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다. 특히 꽃차례의 무성화들이 너무 뽁뽁하게 발달하여 서로 겹쳐질 정도이다. 강산성토양에서는 자줏빛 파란색을 띠고 알칼리성토양에서는 꽃의 색깔이 체리빛 빨간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풍성하게 발달하는 꽃송

이가 매력적이어서 절화 또는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하면 좋다.

 수국 '호버진'
Hydrangea macrophylla 'Hobergine'



Hydrangea macrophylla 'Hobergine'
수국 '호버진'

키가 약 1.2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6-10월경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점점 자줏빛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끝부분이 뽁뽁하다. 보통 산성토양에서는 자주색, 중성에서 알칼리성토양에서는 장밋빛 분홍색을 띤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자줏빛 색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강한 임팩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식재하면 적절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홀러벨'
Hydrangea macrophylla 'Holibel'



Hydrangea macrophylla 'Holibel'
수국 '홀러벨'

키가 약 1.2-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란다. 꽃은 6-9월경 순백색으로 피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은 둥글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끝부분에 얇은 톱니가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풍성하게 피는 하얀색 꽃차례가 매력적이라 웨딩가든이나 화이트가든과 같은 테마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홀스타인'
Hydrangea macrophylla 'Holstein'

키가 약 1.2m까지 둥글고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일반적으로 6-8월경 처음에는



Hydrangea macrophylla 'Holstein'
수국 '홀스타인'



수국 '홀스타인'

연녹색이지만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수변 가장자리나 칼라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식재하면 화려한 경관을 선보일 수 있다.



수국 '호미고'

Hydrangea macrophylla 'Homigo'



Hydrangea macrophylla 'Homigo'
수국 '호미고'

키가 약 1.2-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란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파스텔톤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꽃이 풍성하기 때문에 절화용이나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해도 좋으며 작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다소 그늘진 숲 하부층에 군락으로 식재해도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하펠린'

Hydrangea macrophylla 'Hopaline'



Hydrangea macrophylla 'Hopaline'
수국 '하펠린'

키가 약 1.2-1.5m까지 둥글게 자라는 작은 나무이다. 꽃은 6-9월경 연한 하늘색으로 피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수변 가장자리나 숲정원과 같은 공간에 군락으로 심거나 풍성한 꽃차례를 잘라서 실내 장식으로도 이용해도 좋다.



수국 '헌리'

Hydrangea macrophylla 'Hörnli'

키가 약 1.5m까지 단정하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붉은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다.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Hydrangea macrophylla 'Hörnli'
수국 '헌리'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강한 임팩트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식재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조가사키'

Hydrangea macrophylla 'Jōgasaki'



Hydrangea macrophylla 'Jōgasaki'
수국 '조가사키'

키가 약 1.2m까지 작고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9월경 우산모양 꽃차례로 피는데 중심부에는 자잘한 유성화가 자리잡고 가장자리에는 별모양의 하얀색 겹꽃이 핀다. 약간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작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조지프 뱅크스'
Hydrangea macrophylla 'Joseph Banks'



Hydrangea macrophylla 'Joseph Banks'
수국 '조지프 뱅크스'

앞이 지는 작은키나무로 둥근 모양으로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연한 하늘색으로 벌어지는데 꽃

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은 둥글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파스텔톤의 파란색으로 은은하게 피는 꽃송이가 매력적이라 숲정원 또는 야생 느낌의 자연주의 정원에 식재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줄리사'
Hydrangea macrophylla 'Julisa'



Hydrangea macrophylla 'Julisa'
수국 '줄리사'

키가 약 1.5m까지 단정하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빨간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다소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빨강계 피는 풍성한 꽃차례가 매력적이며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절화용이나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노출된 곳에 심어 강렬한 색상을 감상해도 좋다.

 수국 '킹 조지'
Hydrangea macrophylla 'King George'



Hydrangea macrophylla 'King George'
수국 '킹 조지'

키가 약 1.5-2m까지 단정하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점점 진한 자주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산성토양에서는 자줏빛 빨간색, 중성에서 알칼리성토양에서는 밝은 빨간색을 띤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코닝인 빌헬미나'
Hydrangea macrophylla 'Koningin Wilhelmina'



Hydrangea macrophylla 'Koningin Wilhelmina'
수국 '코닝인 빌헬미나'


앞이 지는 작은키나무로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파스텔톤의 파란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얇은 톱니가 발달한다. 중성에서 알칼리성토양에서는 진한 분홍색으로 꽃이 핀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꽃이 풍성하기 때문에 절화용이나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파란색을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래너스 화이트'
Hydrangea macrophylla
'Lanarth White' 



Hydrangea macrophylla 'Lanarth White'
수국 '래너스 화이트' 



수국 '래너스 화이트' 

키가 약 2m까지 둥글게 자라는 작은키나무이다. 6-9월경 레이스캡형의 편평한 우산모양으로 피는 꽃차례가 매력적이다. 꽃차례의 중심부에는 자줏빛을 띠는 자잘한 유성화가 모여 피고 가장자리에는 꽃잎처럼 보이는 하얀색 꽃받침 조각이 방사상으로 발달한다. 드라이 플라워가 잘되는 품종으로 하얀색 꽃을 말리

면 오랫동안 크림빛 하얀색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레이스 모양의 하얀색 꽃차례가 매력적이라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리벨'
Hydrangea macrophylla 'Libelle'



Hydrangea macrophylla 'Libelle'
수국 '리벨'

수국 '드래곤플라이(Dragonfly)', 수국 '스노우(Snow)', 수국 '텔러 화이트(Teller White)'라는 이름으로도 유통되는 품종으로 모두 같은 종이다. 키는 약 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라며 꽃은 6-10월경까지 흰색으로 피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얇은 톱니가 발달한다. 특히 늦가을 첫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이 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색의 꽃받침 조각은 분홍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식재시 그늘진 곳에서는 꽃의 색깔이 다소 연해지며 양지에 노출되면 색상이 상대적으로 진해지는 점을 알고 계획하는 것이 좋다.

 수국 '릴라키나'
Hydrangea macrophylla 'Lilacina'



Hydrangea macrophylla 'Lilacina'
수국 '릴라키나'

약 1.5-2.0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9월경 레이스캡형의 우산모양 꽃차례가 핀다. 중앙에는 진한 분홍색 또는 파란색의 자잘한 꽃들이 모여 피고 가장자리에는 분홍색의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이 방사상으로 자리잡는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한다. 이때 산성토양에서는 자주색,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분홍색을 띤다. 이렇게 유성화와 무성화의 색깔이 대조 또는 조화를 이루면서 색다른 효과를 보여준다. 수형이 단정하고

꽃이 화려하여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분홍색을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마쿨라타'
Hydrangea macrophylla 'Maculata'



Hydrangea macrophylla 'Maculata'
수국 '마쿨라타'



수국 '마쿨라타'

약 1.5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잎의 가장자리에 하얀색 무늬가 발달하는 특성이 있

다. 꽃은 6-9월경 레이스 모양의 우산모양 꽃차례로 핀다. 꽃차례의 중앙에는 자줏빛 파란색의 자잘한 꽃들이 모여 피고 가장자리에는 연 자주빛 하얀색의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이 방사상으로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꽃이 없는 계절에도 하얀색 잎이 매력적이라 어두운 공간에 식재하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해도 좋다.

 수국 '마담 에밀 무에르'
Hydrangea macrophylla
'Madame Emile Mouillere'



Hydrangea macrophylla 'Madame Emile Mouillere'
수국 '마담 에밀 무에르'

약 2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라는 잎이 지는 작은키나무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연녹

색이지만 점점 순백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한다. 늦가을이 되면 흰색의 꽃받침 조각은 점차 파란빛 분홍색으로 변한다. 특히 잎이 두껍고 염분에도 강하여 바닷가 정원에도 좋으며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다. 또한 하얀색의 풍성한 꽃을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마담 포스틴 트라부용'
Hydrangea macrophylla
'Madame Faustin Travouillon'



Hydrangea macrophylla 'Madame Faustin Travouillon'
수국 '마담 포스틴 트라부용'

약 1.5-2m까지 둥근 모양으로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지

만 간혹 톱니가 한두개씩 불규칙적으로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파스텔톤의 파란색 꽃차례가 풍성하여 실내 절화 또는 드라이플라워용으로 활용해도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2018) 한국 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Alan Toogood(1999) RHS Propagating Plants. DK.
Glyn Church(1999) Hydrangeas. David Bateman.
Michael A. Dirr.(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RHS Plant Finder <https://www.rhs.org.uk/plants>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금성대군과 압각수



이용직

自號 민수례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화山林文學> 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 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편백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억새바람의 전설』(2017).
시집 『물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 『솔숲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숲장 할아버지와 자작나무 천국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화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압각수(鴨脚樹)란, 나뭇잎이 오리의 발가락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은행나무의 별칭이다. 금성단 압각수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사사(賜死)된 금성대군을 기리는 금성단(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다. 이 은행나무는 두 그루가 함께 서 있어 멀리서 보면 한그루로 보일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다. 나무의 높이는 각각 21m, 20.5m로 조사되었고 가슴높이 둘레는 5.5m~4.0m이다. 한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어미나무에서 한 그루씩 새끼 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금성대군이 순흥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연유는 1455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금성대군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역모에 몰려 죽은 성삼문 등 사육신들이 일으킨 소위 계유정난에 연루되어 경상도 순흥부로 유배되었다. 거듭된 유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금성대군의 마음은 변치 않아 순흥부사 이 보흠과 다시 복위 운동을 꾀하던 중 기천(현재

의 풍기)현감의 고변으로 사건이 발각된다. 그 사건으로 금성대군은 안동부로 압송되어 교수형에 처해지고,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어 있던 노산군은 폐서인되어 사약을 받는다. 단종의 나이 17세 때 일이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세조의 잔학 상은 점점 더해 갔다.



금성대군과 단종을 사사한 세조는 역모를 꾀한 고을이라는 누명을 씌워 순흥 고을의 백성을 도륙하고, 고을을 폐지하니 고을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물며 집에서 먹이던 짐승까지 찾아내 몰살시키니 사람이 쏜은 핏줄기가 십 리나

떨어진 이웃 마을까지 뻗어 있었다 한다. 지금도 순흥면에는 피끝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마을이 실존하고 있으니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현장을 보는 것 같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600~900여 년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기록은 없다. 절집 근처 노거수들이 스님의 지팡이를 쏜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듯이 이 은행나무 역시 그러하다. 노거수의 나이는 식재 기록에 의하지 않으면 허수일 수밖에 없고, 설사 정확한 나이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으므로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금성단 은행나무는 아주 옛날, 마을을 지나던 한 도사가 이르기를 ‘장차 이 고을이 폐지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가면 은행나무가 죽을 것이고, 좋은 세월이 돌아오면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다. 실제로 금성대군이 역모로 사사(賜死)되던 해 까닭 없이 나무가 죽었다가 고을이 복원되던 숙종 연간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이 은행나무와 금성대군의 슬픈 인연을 연결하여 그렸을 공산이 크다. 금성단은, 계유정난 때 고을을 폐지당한 순흥부

백성들이 금성대군의 묘소를 찾던 중, 대군이 사약을 마시고 절명할 당시의 피 묻은 돌을 발견하고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부터 유래되었다. 은행나무는 원줄기가 불에 탄 흔적이 있었고, 수관부에는 가지가 무성하여 생장의 균형을 잃고 있었다. 땅속뿌리가 노쇠하여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였고, 은행나무 주위로 경계석을 쌓으면서 불필요한 복토를 많이 하였다. 나무줄기에 발생되고 있는 공동부위에 대한 외과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원줄기에 생긴 공동은 부패부위를 도려낸 다음 방충 및 방부제를 처리하고 합성수지로 공동을 충전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켈루스(훼손된 부분에서 새살이 돌아나는 현상)가 발달하는 부위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무는 앞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과 땅속뿌리가 흡수하는 수분과 미네랄 등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뿌리보다 지엽이 많으면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할 것이고, 뿌리가 과도하면 나무가 웃자라거나 불필요한 맹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세가 쇠약한 은행나무를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뿌리를 강건하게 발달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척박해진 토양

에 유기물이 풍부한 상토를 충분하게 처리하여 지력을 증진시켰다. 이 은행나무는 앞으로도 긴 세월을 살아야 할 터인데 원줄기가 썩어드는 중병을 앓고 있어 더욱 안타까웠다. 역사의 흑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반 천년을 살아 온 고마움과 앞으로의 긴 세월을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인간의 역사가 새겨진 노거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노거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바람일 것이다. 🌳



남궁억의 무궁화 사랑

시인·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무궁화는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은 무궁화나무의 꽃이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무궁화는 건국 초기부터 5천 년 넘게 우리 민족과 함께했다. 중국 지리서인 『산해경』에는 “군자의 나라가 북방에 있다.무궁화가 많아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화랑들은 머리에 무궁화 꽃을 꽂고 다녔으며, 통일 신라 시대 때 최치원은 신라를 ‘근화향’, 즉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다. 『고려사절요』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우리나라를 ‘근화향’이라 일컬었다.



이렇듯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은 무궁화는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국화)’으로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

무궁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무궁화 보급에 앞장선 남궁억이다.

남궁억은 일제 강점기에 언론 활동과 교육 사업으로 애국 계몽 운동을 벌인 독립운동가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칠곡부사·성주목사·양양군수 등 관료로 일했다. 서재필의 『독립신문』에 참여하고 『황성신문』 초대 사장을 지냈으며, 『교육월보』라는 잡지도 발행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배화 학교 교사로 9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고, 1918년 선조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보리울)로 내려가 모곡 학교를 세워 교육에 전념했다.

남궁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다른 무궁화 사랑이다. 배화 학교 교사 시절 남궁억은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틈틈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우리 꽃 무궁화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궁화 꽃으로 뒤덮은 한반도 지도를 여학생들에게 수놓게 했다. 그때 남궁억은 이런 말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이 수놓은 이 아름다운 무궁화 금수강산을 여러분의 손으로 꼭 되찾아야 합니다.”

남궁억은 홍천의 모곡 학교에서 무궁화 사랑 운동을 전개했다. 학교와 그 주위에 무궁화 7만 그루를 심어 무궁화동산을 가꾸었다. 그리고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의 학교와 교회 등에 보냈다. 일제의 단속으로 무궁화 묘목을 보내는 일이 어려워지자 다른 방법을 찾았다. 무궁화 묘목과 함께 가꾼 뽕나무 묘목을 팔 때 일제의 눈을 피해 무궁화 묘목을 섞어 보내 전국에 무궁화를 퍼뜨렸다. 무궁화 묘목이 어릴 때는 뽕나무 묘목과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다. 뽕나무인 줄 알

고 심었다가 무궁화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은 무궁화를 화단에 옮겨 심어 잘 가꾸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무궁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었다.

음악에 밝고 가야금도 잘 탔던 남궁억은 100여 곡의 노래를 지어 학생들에게 부르게 했다.

그 가운데는 「무궁화동산」이라는 노래도 있다.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혼풍을 만나 무궁화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이천만

백화가 만발한 무궁화동산에

미묘히 노래하는 동무야

백천만 화초가 웃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우리 이천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동산

잘살아라 이천만의 조선족

남궁억은 무궁화동산을 가꾸면서 비밀리에 ‘무궁화십자당’을 만들었다.

무궁화십자당은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여 민족정신을 드높이자는 것이었다.

1933년의 어느 날 일제 경찰은 학생들이 부르는 「무궁화동산」 노래를 듣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모곡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비밀 결사 조직인 무궁화십자당이
활동 중임을 알아냈다. 모곡 학교는 강제로 문을 닫았고, 무궁화 7만 그루는 불태워졌다. 이 일
이 ‘무궁화동산 사건’이다.

남궁억은 이 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일제 경찰이 왜 학교에서 많은 무궁화
를 재배했느냐고 묻자 남궁억은 이렇게 대답했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꽃이다. 이 꽃을 재배하여 많이 보급하면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다. 그래서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에 보급했다.”

남궁억은 감옥에서 병을 얻어 1939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무궁화 밑에 묻어 거름이 되게 하라.”



노거수 산책(2)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



박정기

(사)한국조경수협회 이사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소재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128-3번지 외 10필지
제원 : 수고 12.8m, 수관 폭 11.5m, 가슴높이 둘레 3.61m,
수령 : 250~400년 추정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는 난음리 일원에 분포하는 비자나무 중 가슴높이 둘레가 3m를 넘는 노거수군(群)이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현지 조사에서 비자나무 878개체를 확인하고 그 중 23그루를 노거수로 특정하였다. 분포 현황과 생육특성 분석을 거쳐 2023년 4월 21일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열린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 생육특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목과(科) 비자나무는 내장산 이남에서 제주도까지 자생하는 상록교목이다. 생장속도가 늦은 장수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매를 얻기 위해 심어 기르기도 한다.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3개체, 수림지는 5개소이며 바다 가까운 산기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분포지역이 한정되고 고산지대에 자라는 주목과는 생육환경 차이가 뚜렷하다. 남해는 난대기후대에 속하며 평균기온 14.2°C, 1월 평균기온 2°C, 최근 10년 평균연강수량은 2,002mm이다. 치자나무, 유자나무, 비자나무가 많다 하여 삼자도라 불린다. 통영시 해안도서 및 거제도, 가덕도에 비자나무 생육지가 확인되지 않아 남해는 한반도 남동 해안도에서 유일한 비자나무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난음리 비자나무는 소하천·주거지·농경지와 접하는 산기슭에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등고선 방향을 따라 계곡부에 출현하였고 급경사지 바윗돌 사이 출현 개체가 많은 것은 야생동물로부터 종자 보호와 휴면타파에 유리한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중심부는 위도 34.80068, 경도 127.98114, 평균 고도 81m이다. 방위는 서-남향이 많고 북-서향은 20%, 동향은 5%이하이다. 자생지 평균경사도는 25°이지만 15~19° 산림 주연부에 비자나무 분포 밀도가 높았다. 생육특성 분석에서 입목형태는 개체 간 15m 이내 이격하여 2~5본이 분포하는 양립·다립 개체(48%)가 15m 이상 이격하는 단립 개체보다 적어 군집밀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초살도가 높고 낮은 지하고로 자랐으며 다간 개체(67%)가 많고 절간장이 짧은 것은 단립 조건에 척박한 토양과 바람에 더딘 생장력 때문이다. 풍압을 덜 받고 유기물 집적이 많으며 토양습도가 높은 북쪽 사면 개체는 수관 폭이 좁고 지하고가 높으며 단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지 발달이 남향에 치우치고 밑둥이 옆으로 비대해진 현상은 굴광성과 수직근 도태 이후 등고선 방향으로 발달하는 근계에 기인한다. 남향 급경사면 개체의 북쪽 가지 퇴락은 지형 간섭에 의한 통풍 부족과 남쪽 지엽의 일조차단 영향으로 판단된다. 심재 부후로 인한 동공(空洞)을 가진 개체(12%)는 수직근이 비교적 일찍 도태되는 종 특이성과 경질지반 요인으로 보인다.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는 화순 개천사, 장성 백양사, 고흥 금탑사, 해남 녹우단,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군(群)과 지리적 위치를 달리하고 서식지 환경, 생육특성 차이가 뚜렷하여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산림의 천이와 기후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고사지, 부정아, 움 돌은 가지, 착생·등반식물 제거와 함께 수관 확장을 막고 일조를 방해하는 간섭 식생의 인위적인 조절이 시급하다. 제원이 우수한 23본은 보호수 지정이 필요하다. 분포 밀도가 높은 산림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치수 입식 등 자생지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접근성이 좋은 개체는 생태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을 것이므로 맹종죽 숲과 연계하여 활용하기를 제언한다. 🌳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박 정 기

신규회원사 (2023.04-06)

지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강원	건원건설 주식회사	배금실	033-766-790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자은동길 59-8
경기		김조훈	031-419-0330 010-7701-330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181
광주 전남서부	대순조경	노병은	062-265-7237 010-8761-101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43-8
광주 전남서부	이슬	정준	010-3906-52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43, 광주 선운지구 EG the1 2단지 205동 1201호
경남중부	남도조경	강창웅	010-3849-255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9번길 14-7
경남서부	황금농원	양기수	055-673-3880 010-3874-1171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984
전남동부	주식회사 푸른산천	주용준	061-921-7793 010-2733-7261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3길 10, 1층

회원사변경 (2023.04-06)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주)서림원예종묘	송병수	주소변경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32-6
(주)태평	김효식	주소변경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4, 정호빌딩 4층
송계농장	허회용	주소변경	강원도 원주시 송림길 52-22, 2층
서순천정원 영농조합	이기진	핸드폰변경	010-3603-4130
태라식물원	장휴태	상호,대표자, 핸드폰변경	상호:(주)다올→태라식물원, 대표자:장경모→장휴태, 핸드폰:010-4586-7300
주식회사 다원	김용각, 김대중	상호, 대표자변경	(주)다원녹화건설→주식회사 다원 대표:김용각→김용각,김대중
장미조경	신정복	주소변경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699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액**

회비납부액			
회장	13,000,000원	부회장	2,600,000원
감사, 지회장, 이사	650,000원	일반회원	본회 150,000원 (지회비 별도)

※ 지회비는 각 지회로 별도 문의 요망

• **회비 납부 계좌**

지회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중앙회 (*임원 회비입금처)	농협	031-01-362481	한국조경수협회
서울	우리	1006-401-561764	양경복(사)한국조경수협회 서울지회
경기	농협	302-1421-0329-11	송병수 (사)한국조경수협회 경기지회
강원	농협	351-0802-3423-13	김진걸
충북	농협	352-2078-8185-83	조경수협회 충북지부 이상국
대전·세종·충남동부	농협	352-1714-0067-63	송대영
충남서부	농협	352-1240-2624-53	안신
전북동부	농협	352-1710-6368-53	송인자 (사)한국조경수협회
전북서부	농협	351-1266-1784-43	권일병
전남동부	농협	356-1573-9347-53	송종일
광주·전남서부	산림조합	601-11-0003074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대구·경북	농협	317-0026-7142-91	한국조경수협회 대구경북지부
경남중부	농협	356-1357-3775-13	경남중부지회
경남서부	국민	580902-01-512734	이제현
울산	국민	866001-01-365763	이윤해
부산	부산	112-2157-0993-03	박미애
제주	농협	979-12-275401	김승철

• **회비납부율(5.31일 현재) : 임원 45%, 일반회원 : 36.68%**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개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3.6.7. 개정시행 됨에 따라 임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임업인들에게 임업 경영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체험·관광·숙박 등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 영체협립의 조성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숲경영 체협립을 조성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로 선발·선정된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정하는 한편, 숲경영체협립에는 영림업·임산물생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숙박·편의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숲경영체협립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반마련 목적이 있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소개한다.

*독립가(篤林家): 일정 면적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조의7(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①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립가로 선정된 자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 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
터 이상의 산림(사용·수익하고 있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의8(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
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 <신설 2023. 6. 7.>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

1.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나. 숙박· 편익시설	숙박시설[숲속의 집·트리하우스·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야영장 등]·임도·산책로·탐방로·등산로·야외탁자·모노레일·야외쉼터· 대피소·주차장·방문자안내소·임산물판매장·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라. 교육시설	자연관찰원·전시관·목공예실·생태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교육자료관 및 세미나실 등

구분	시설의 종류
마. 체육시설	철봉·그네·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장 등
바. 전기· 통신 시설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중계기·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사. 안전시설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소화기·재해경보기·보안등·비상조명설비· 비상조명기구·재해예방시설·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2.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 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 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7) 숲경영체험림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경영체험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숲경영체험림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형질변경 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8)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숲경영체험림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 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 미터 이하일 것 다) 건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일 것 9)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것

나. 시설별 설치기준	1) 기본시설	가) 숲경영체험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면적의 20% 이상일 것 나) 숲경영체험 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 것
	2) 숙박· 편의 시설	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나)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 등을 유지할 것 다)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 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라)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곱 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 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바)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3) 위생시설	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체육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안전시설	가) 긴급한 재난·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추어 것 나) 소화기를 배치할 것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라) 비상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 조명설비 또는 비상 조명기구를 갖추어 것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창조적 친환경 조성, 한국조경수협회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창조적 친환경 조성에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경영을 현대화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회원사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1. 임업정책자금(조경수생산자금)을 해당 산림조합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2. 조경수생산 및 녹화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3. 산림소득사업공모(조경수컨테이너 재배)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신청서를 대행 작성해 드립니다.
4. 한해 대비 조경수생산농장 급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정시설사업 국고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조경수 최신 생산기술과 관리에 대한 최신정보를 협회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6. 조경수 가격, 공사품셈, 회원명단이 게재된 조경수목정보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7. 협회 홈페이지 「조경수 매물정보」코너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등)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최신 조경수 생산기술 및 관련정보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선진지 시찰, 기술세미나 등 협회주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조경수를 0.5ha이상 재배하는 자
- 문 의 처 :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조경수 직거래 안내

- ▶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에서는 조경수 매물, 매입의 직거래를 할수있습니다.
- ▶ 이용료 납부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시간에 구매없이 매물을 올릴 수 있고,
사진이 공개되어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분은 협회에서 도와드립니다.)

추천매물 농장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묘목매물	조경수 매입
이용료 연 30만원 (홈페이지제작시 별도비용발생)	연 7만원 6개월 5만원	무료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